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수업 사례를 통한 고전문학 교육 방안 연구

조홍윤*

<차례>

1. 서론
2. 고전문학 교육 과정의 설계와 내용
3. 교육 과정의 성과와 보완점
4. 결론

<국문초록>

해외 한국학 교육기관의 현실 속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은 높지 않다. 주로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마저도 시공간적으로 해외 현지의 학습자들과 거리가 먼 고전문학 교육은 논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립 전공으로서 한국학, 언어학, 한국 문학에 대한 제반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을 이유로 고전문학 교육의 의무를 방기할 수 없다. 이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자와의 괴리'라는 절대 난제를 극복하여 고전문학 지식을 얻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는 총 5학기에 걸친 고전문학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실제 교육에 적용하였으며, 본고는 해당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그 성과를 가늠하여 향후의 개선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교육 과정의 핵심은 터키 현지의 학습자들이 한국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느끼게 될 시공간적 괴리를 최소화하고, 고전문학을 암기 학습의 대상이 아닌 문학 감상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제 1회차 교육 과정 이수자들이 배출된 시점에 그 성과를 돌아보았을 때, 학생들이 한국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교수 (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Öğr. Gör.)

의 고전문학을 감상의 대상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인간 보편적 삶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현지 맞춤형 교재의 발간을 통해 이론 수업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성, 고전문학 선집의 발간을 통해 감상 자료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고전문학 감상 학습 여건을 제공할 필요성,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론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고전문학, 고전문학 교육

1. 서론

최근 한류 문화에 대한 유래 없는 호응과 관심이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을 위한 강의와 학과가 속속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대학의 수는 2017년 기준 105개국 1,348개 대학이며, 이는 1991년의 32개국 151개 대학에 비하여 9배에 달한다.¹⁾ 그야말로 한국학의 세계화를 논할만한 일대 변혁의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 속에 놓인 해외 한국 고전문학 교육의 현재를 돌아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상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교육 여건 속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은 높지 않다. 주로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마저도 시공간적으로 해외 현지의 학습자들과 더욱 먼 거리에 놓여 있는

1)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해외 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24쪽.

고전문학 교육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교육 과정의 중심이 언어의 습득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문학이라는 독립 전공으로서 한국학, 언어학, 한국 문학에 대한 제반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만을 핑계 삼아 고전문학 교육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고전문학은 한국 고유의 문화적 원형과 세대를 거쳐 내려온 한국적 인식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문학의 영역을 넘어 한국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도 고전문학 학습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자와의 괴리'라는 절대 난제를 극복 또는 우회토록 하여 학사 수준 이상의 고전문학 지식을 얻게 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²⁾

그러나 해외 현지의 한국 고전문학 교육방안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선행 연구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들도 대부분 한국어 교육 서브텍스트로서의 활용에 관한 경우가 주를 이루며, 그마저도 현대문학에 중점을 두는 논의가 많다. 간혹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경우에도 설화 등 짧은 텍스트의 활용에 관한 것이거나, 전체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닌 개별 작품의 한국어 교육 활용에 관한 것에 그친다.³⁾ 이처럼 해외 한국어문학 전공

2) 여기서 '학사 수준'이란, 한국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학부 졸업생의 수준일 수는 없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며 접하게 되는 작품의 수만 해도 해외의 학생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낮은 수준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목표로 삼은 '학사 수준'은,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전문 연구자로서의 양성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수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한국 고전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둘째로 고전문학사의 각 국면에서 대표로 꼽힐 수 있는 작품이나 작가를 알며, 셋째로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이해하며, 넷째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접하게 되는 작품이나 문학 현상에 대하여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자들을 대상으로 둔 전체 고전문학 교육 과정의 설계와 그 실행에 관한 논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교육 목표와 여건에 따라 효과적인 고전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자기 나름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와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는 총 5학기에 걸친 고전문학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실제 교육에 적용하였다. 해당 교육 과정의 핵심은 ‘감상과 이해 중심’의 고전문학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도 고전문학 교육

연구소, 1999, 239~256쪽; 김해옥,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 교육 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어정보학』 4, 한국어정보학회, 2001, 15~25쪽;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53~171쪽; 최권진,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 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237~266쪽;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한국학』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7~130쪽;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외국문학연구』 29,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237~261쪽; 오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시 읽기 전략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343~375쪽; 김혜영, 『문학교육과 언어적 상상력』,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2009, 577~610쪽; 우한용, 『소설 텍스트 중심으로 본 문학능력과 한국어교육』, 『한국어와 문화』 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0, 211~241쪽; 윤여탁,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49~176쪽; 오은엽, 『김유정의 『봄·봄』에 나타난 웃음문화와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한국문예비평연구』 4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315~348쪽; 김정섭,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 방안: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수수께끼”의 활용 방안』,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137~164쪽; 서유석·장만호, 『<춘향가>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배달말』 57, 배달말학회, 2015, 401~426쪽; 심재희, 『한국어교육과 문학 텍스트』, 『국어교육학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6, 93~127쪽; 이해강, 『문학 작품을 활용한 단계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9(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413~426쪽; 김태연,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학습자 및 교수자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121~147쪽 등을 참조.

의 난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학습자와의 괴리’이며 그것이 현지 학습자들의 고전문학 이해나 학습욕구를 저해하는 핵심 난제임을 고려하고, 문학의 본령인 흥미와 감동에 충실한 접근을 통해 한국 고전문학의 제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현재는 해당 교육 과정을 실제 적용한 1회 차 학습자들이 배출된 상황으로서, 교육 과정의 실제 적용에 관한 득실을 평가하고 그 보완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당 교육 과정의 전체 구성과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그 성과와 보완점을 반추함으로써 향후의 개선점을 논하고자 한다.

2. 고전문학 교육 과정의 설계와 내용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는 지난 2016년 가을학기부터 문과대학 동양어문학부 산하의 독립 학과로서 한국어문학과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1989년 앙카라대학교, 2003년 에르지예스대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된 정규 학과이다. 이스탄불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 개설은 터키의 고등교육에 있어 한국의 위상이 크게 재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스탄불대학교는 터키 경제·문화의 중심인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키 최대·최고(最古)의 대학으로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 및 터키 사회의 리더를 배출해온 바, 터키 고등교육을 상징하는 심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스탄불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간 외국학으로서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던 한국어문학이 비로소 터키 학계의 중심에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한다.

소속 대학의 드높은 학문적 자부심에 걸맞게끔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교육 과정은 2016년 개설 당시부터 수준 높은 전공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히 인기 있는 언어를 배우는 언어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거나 한국계 기업에의 취업을 위한 준비 기관으로서의 정체를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터키 한국학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학문의 요람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학과 설립 멤버들의 포부에 따른 것이다. 이에 터키의 기존 한국어문학과들이 다소 한국어능력의 신장에 편중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언어 기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⁴⁾,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1~2학년의 언어 기능 중심 교육 과정과 3~4학년의 전공 심화 교육 과정을 두루 안배하여,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구비문학, 비교문학, 스토리텔링,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한국학의 제반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전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폭넓은 한국학 교육 과정이 설계될 수 있었던 것은, 터키 학생들의 한국어습득 능력이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며⁵⁾, 해당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5명의 한국인 전임 교수진이 포진하였기에 가능했다.⁶⁾

그에 더하여 2018년 가을학기부터는 준비반(Hazırlık Sınıfı, Preparation course) 과정을 개설하여 기존 4년제 교육 과정을 5년제로 전환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반에서 1학년 과정까지 TOPIK 5급에 해당하는 한

-
- 4) 기존 앙카라대학교와 예르지에스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조은숙·프나르 알툰다오, 『터키 내 한국기업과 한국어학습자의 요구분석-대학 내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와 개선을 위하여』, 『언어정보와사전편찬』 32,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2013, 61~9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이는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대체로 우수한 것에 의한 영향도 있다. 2019년 가을학기 기준 학생들의 평균 입학점수는 터키 전체 수험생들의 상위 1%내에 해당한다.
 - 6) 5명의 한국인 전임 교수진은 각각 언어학, 한국어교육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한국학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터키인 전임연구원 1명이 이들을 뒷받침하여 행정 및 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국어능력을 습득케 한 후 2학년에서 4학년 과정을 통해 심화된 한국어문학 및 한국학 전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2018년을 기해 완성된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의 교육 과정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육 과정

학년/학기	과목명	학점
준비반/1	한국어 기능	25
준비반/2	한국어 기능	25
1학년/1	한국문화의 이해1	2
	문법론과 어휘론(기초)1	2
	독해1	3
	작문1	2
	듣기1	4
	말하기1	4
1학년/2	한국문화의 이해2	2
	문법론과 어휘론(기초)2	2
	독해2	3
	작문2	2
	듣기2	4
	말하기2	4
2학년/1	한국학개론1	2
	문법론과 어휘론(심화)1	2
	한국고전시가입문	2
	한국현대시입문	2
	한자의 이해	2
	발표와 토론1	4
2학년/2	한국학개론2	2
	문법론과 어휘론(심화)2	2
	한국고전서사입문	2
	한국현대소설입문	2
	한문의 이해	2
	발표와 토론2	4
3학년/1	한국역사학1	2
	대조언어학	2

	한국어학개론 시사한국어 한국고전문학사1 한국현대문학사1 드라마(극이론)1	2 2 2 2 2
3학년/2	한국역사학2 한국어교육론 한국어화용론 고전문학사2 현대문학사2 드라마(극이론)2	2 2 2 2 2 4
4학년/1	한국 근현대 정치·경제의 이해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론 통역론1 번역론 구비문학론 한국문학과 콘텐츠1 논문세미나	2 2 2 2 2 2 2
4학년/2	한국의 국제관계 한국어교육 실습 통역론2 비교문학론 한국문학과 콘텐츠2 논문세미나	2 2 4 2 2 2
총계		111

위에 제시된 전체 교육 과정 중에서 고전문학 분과의 전공 교과에 해당하는 것은 2학년의 ‘한국고전시가입문’와 ‘한국고전서사입문’, 3학년의 ‘한국고전문학사’, 4학년의 ‘구비문학론’이다. 총 5학기에 걸쳐 주당 2학점씩이 배정되어 있으며, 한국 고전문학의 대강을 경험할 수 있는 입문 단계에서부터 통시적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문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학사 교육의 단계로 이어지며, 그에 더하여 앞 단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려운 구비문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안배된 것이다.⁷⁾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문학 교육 과정의 각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당 교육 과정 설계의 초점이 ‘고전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아닌 ‘고전문학 교육’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설립 멤버들은 학과의 정체성을 ‘차세대 한국학의 요람’으로 여기고 전문적인 한국학 지식 전반의 습득을 교육 목표로 상정하였으며, 그에 발맞추어 고전문학 분과 또한 한국 고전문학 전반에 대한 교육 자체를 목표로 두게 된 것이다. 그간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관해서는, 작품이 지닌 언어자료로서의 가치와 문화 교육에 관한 이점 등을 내세워 그러한 효과를 담보할만한 작품을 선별·활용하는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⁸⁾ 그러나 고전문학 교육의 차원에서는 한국 고전문학의 전체상과 그 변화의 양상을 제시하고 한국 고전문학의 전형을 나타내는 대표작들을 통해 그 내질을 두루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상기의 언어·문화 교육적 효과는 부차적·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전체 교육 과정의 설계에 앞서 다음과 같은 고전문학 교육의 원칙이 설정되었다.

첫째, 한국어 교수 자료를 통한 한국어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세부적인 정보의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시대·장르별 대표작을 두루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 스스로 작품 및 문학 현상의 의미를 사유케 한다.

7) 엄밀히 말하자면 구비문학은 최근의 구술생애담 연구 등을 비롯하여 온전히 고전문학의 영역에 포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구비문학 작품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고전문학에 포함시키는 관습적 구분을 따른다.

8) 백인자,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22, 2004, 63~67쪽 참조.

첫째, ‘한국어 교수자료를 통해 한국어로 강의한다.’라는 원칙은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해외의 경우 한국 문학 교육이 한국어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현지어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특히 해외 교육기관의 경우 문화교육적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지어나 영어 교육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⁹⁾ 분명 내용의 전달 측면에 있어서 현지어나 영어로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이 지닌 장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문학 교육이 한국어교육을 보조하는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때에 그와 같은 장점은 뚜렷하다. 문제는 그것이 전문 연구자의 양성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을 보더라도, 1897년부터 한국학 강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¹⁰⁾의 경우와 같이 길게는 100년 이상의 한국학 전통을 지닌 해외 교육기관들이 있는 상황이며, 각기 해외 한국학의 명문으로서 수십 년의 역사를 경유한 곳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기관의 교수진 및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와 연구자들 중에서 한국어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물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의 독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는 현지에서 모든 학위 과정을 이수한 교수와 연구자들이 한국어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한 상황에 기인하며,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국의 학술 용어들을 습득할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9) 유홍주, 『해외 대학 한국어학과와 한국문학 교수 방안 : 헝가리 엘테대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141쪽.

10) 최이나, 『러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논고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정은경·손영은 편, 『중앙 유라시아 지역 한국학의 현황과 비전』, Istanbul: Demavend Yayınları, 2019, 77쪽.

이로 인해 한국내의 한국학 연구 성과와 해외의 한국학 연구 성과가 상호 교류되지 못한 채 각자의 영역을 점차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학에 관하여 양적·질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 쪽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국의 연구 성과들을 수렴하고 한국의 학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역량 있는 현지 한국 고전문학 교육 및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교육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한국의 옛 언어 표현이나 문학 용어를 이해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의 전달에 있어서 뚜렷한 난점이 있음은 분명하나 그것이 극복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향후 역량 있는 한국 고전문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이용한 교수·학습이 고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세부적인 정보의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고전문학이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닌 이해와 감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문학은 본디 향유자들의 흥미와 감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예술 장르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공 교육의 대상이 될 때에는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있어 난이도 높은 암기과목으로 전락하곤 한다. 전공자로서 마땅히 알아야할 수준의 세부 지식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문학을 암기해야 할 지식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학습자의 심리적 장벽이 되어 문학을 온전히 즐기므로써 이해와 감동을 통해 스스로의 사유를 확장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고전문학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데, 옛 언어로 되어 있는 고전문학의 경우 고전 언어의 훈고 주석에 얽매이도록 하고 거기 사용된 옛 표현 자체를 암기해야만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거나 작품을 둘러싼 메타 정보의 암기에 얽매이도록 하는 경향성이 고전문학 교육의 난맥상을 만들고 있다.¹¹⁾

이에 이스탄불대학교의 한국 고전문학 수업에서는 처음부터 수업에 제시되는 작품의 작가 정보나, 창작 연대, 출전 및 이본과 각편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구조, 작품에 사용된 수사법, 핵심 상징, 통설적인 해석 등을 암기할 필요가 없노라 선언한다. 해당 정보들은 모두 작품이나 당대 문학장의 이해를 돕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먼저 작품 그 자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문학 학습의 핵심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¹²⁾,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전문 데이터베이스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¹³⁾ 이에 학생들은 방대한 정보의 암기 없이도 얼마든지 고전문학 작품과 문학사에 대하여 필요한 수준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전공자로서 지니게 되는 지식의 디테일에 대한 부담 없이 주어진 작품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다.

셋째, ‘시대·장르별 대표작을 두루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은 학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 교과로서 어쩔 수 없이 ‘정전(正典, Canon)’을 의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 고전문학사를 관류하여 각 시대별·장르별 문학 양상과 미적 성취의 정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대표작들이 존재하며, 한국 고전문학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그와 같은 작품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에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고전문학에서 정전적 지위를 지닌 대표작들을 두루 감상하게 하되, 그 가

11) 김민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육 방법 - 『허생전(許生傳)』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2, 한국어교육학회, 2015, 16쪽.

12) 권순궁,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과 고전문학 교육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5, 53쪽 참조.

13) 권순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문학의 모색』, 『국어국문학』 165, 국어국문학회, 2013, 15~17쪽.

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의 교육은 지양한다.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작들은 한국 문학 이해의 거점으로서 의의를 지닐 뿐 그것이 한국 문학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각 대표작들을 통해 당대 한국의 문학과 향유자들,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작품의 보편적 의미를 궁구함으로써 그것이 당대의 한국이 아닌 현재·현지의 학생들의 삶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유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전 위주의 고전문학 교육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을 고려한 바¹⁴⁾, 그 옛날의 한국 대표 문학 작품들이 결코 학생들의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님을 확인토록 하기 위한 안배이다.

넷째, ‘학생들 스스로 작품 및 문학 현상의 의미를 사유케 한다.’는 원칙은 문학적 경험이 곧 사고의 확장과 의미의 재생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근의 역량기반 교육 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¹⁵⁾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작품 감상 시에는 사전에 주어진 정보 없이 오직 자신의 시각에 의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정해진 틀이 없는 자유로운 사유를 통해 작품을 비평하도록 독려한다. 문학사 교육에 있어서는 문학의 형식이나 담담자, 작품의 주제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 어떠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함의하는가를 고민하도록 한다. 이로써 문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학 작품이 지닌 원형적·보편적

14) 오늘날 한국은 물론 세계 전반적으로 고전문학 교육이 학습자들의 실제 삶과 괴리됨으로써 그 교육적 가치를 입증해야 할 입장에 놓였음이 지적되고 있다(고정희, 『영국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 비형식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57, 국어교육학회, 2017, 91쪽).

15)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혁신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강의식, 암기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주어진 과제 및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과정을 통하여 지식이나 기술, 전략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최혜진, 『역량기반 고전문학교육의 방법과 과제』, 『어문론총』 8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09쪽)

의미를 충분히 실감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내면적 힘으로 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stanbul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고전문학 교과들은 위와 같은 원칙들에 따라 의도한 바의 교육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위해 먼저 각 교과와 주차별 학습내용을 제시한다. 전체적인 양상을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5학기에 걸친 고전문학 교육 과정 전체를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연계된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2학년 1학기의 ‘한국고전시가입문’과 3학년 1학기의 ‘한국고전문학사1’ 교과와 주차별 학습내용을 제시하여 살펴해보도록 한다.

[표2] 한국고전시가입문 주차별 학습내용

주차	강의 주제	감상 작품
1	한국 문학을 공부하기에 앞서	
2	고대시가	<공무도하가>, <구지가>, <황조가>
3	향가 1	<서동요>, <헌화가>
4	향가 2	<처용가>, <제망매가>, <도천수대비가>
5	고구려와 백제의 노래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고구려와 백제의 노래 내용, <정읍사>
6	고려속요 1	<동동>, <쌍화점>
7	중간고사	
8	고려속요 2	<만전춘별사>, <서경별곡>, <가시리>
9	경기체가	<한림별곡>
10	시조 1	<구름이 무심탄 말이>, <하여가>, <단심가>, <오백년 도읍지를>
11	시조 2	<동짓달 긴긴 밤을>, <창 내고자>, <두꺼비 두엄 위에 앉아>
12	가사	<사미인곡>, <속미인곡>
13	판소리	<춘향가>

14	민요	<모심는소리>, <베짜는소리>, <정선아라리>, <시집살이노래>
15	기말고사	

위에 제시된 ‘한국고전시가입문’ 교과는 학생들이 2학년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수강하게 되는 한국 고전문학관련 교과이다. 고전문학 중에서도 시가 문학의 학습을 선행토록 한 것은 학습자들이 감상을 위해 읽어야 할 텍스트의 양이 서사문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만큼, 첫 문학 수업에 대하여 느끼게 될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의도이다. 주차별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겠으나 주차별 강의 주제와 감상 작품의 선정은 3학년에 학습하게 될 고전문학사 교과를 의식하여 선정된 것으로, 고전문학사를 통해 다루게 될 시대·장르별 대표작들을 미리 감상하여 한국 고전문학의 전체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스키마(schema)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의 수업은 12~13명 규모의 강의로¹⁶⁾, TOPIK 5급 정도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차별 대상 작품은 1주일 전에 원문과 해석, 쉬운 현대어 역이 제공되도록 하며 학생들은 수업 전에 작품을 미리 감상하여 작품의 의미를 짐작하고 특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감이 드는 점들에 대해 생각해 오게 된다. 강의 시간에는 먼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감상을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로 시대적 특성이나

16)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학년별 정원은 20명이다. 이 중 준비반과 1학년 과정의 교육 과정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3~4명 정도이며, 매학기 교환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는 학생이 4~5명 정도이다. 그에 따라 12~13명 규모의 소규모 강의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는 강의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장르적 특성, 작품에 사용된 수사법이나 특별한 함의, 혹은 작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철학·심리학·문학 이론 등을 보충적으로(최소한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참고할만한 시청각 콘텐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함께 감상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확인한다. 항상 강조되는 것은, 강의 시간의 이론 수업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는 것이 학생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첫 주치의 ‘한국 문학을 공부하기에 앞서’를 통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며, 1년 동안 고전시가입문, 고전서사입문 교과를 학습하는 내내 거듭 강조된다.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중간·기말의 보고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는 고전문학 학습의 방법으로 ‘즐겁게 감상하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개인적 감상의 결과가 평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의 평가 또한 감상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평가하지 않고 감상의 충실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한 작품에 대한 학생 개인의 해석 방향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감상하며 얼마나 깊이 있는 수준의 사유를 이루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까지 자신이 감상한 작품들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되었던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작품의 현실적 의미를 구명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에는 터키의 고전문학 작품이나 세계의 고전문학 작품과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순히 한국의 고전문학으로서만 해당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편문화의 차원에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여 더욱 두드러지는 특수성 또한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는 성취의 평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학생 자신의 감상을 입체적이고도 깊이 있게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학년 과정 동안 ‘한국고전시가입문’, ‘한국고전서사입문’ 교과를 수강한 학생들은, 실제적 감상 경험과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자신만의 인식이나 정체상을 확립한 후에 3학년의 한국고전문학사 교과를 수강하게 된다. 이때 수강하게 되는 ‘한국고전문학사1’ 교과의 주차별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한국고전문학사1 주차별 학습내용

주차	강의 주제	감상 작품
1	한국 고전문학사의 기초 개념과 범주	
2	한국 고전문학의 갈래와 시대구분	
3	원시 문학 1	<설문대할망 전승>, <창세가>, <천지왕본풀이>
4	고대 문학 1	<단군신화>, <주몽신화>, <허거세신화>
5	고대 문학 2	유리왕 <도술가>의 배경 설화
6	중세전기 문학(삼국-후삼국) 1	<여수장우증문시>, <풍요>, <도술가>, <모죽지랑가>, <혜성가>, <우적가>
7	중간고사	
8	중세전기 문학(삼국-후삼국) 2	<원왕생가>, <원가>, <도천수대비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9	중세전기 문학(고려 전기) 3	<화왕계>, <최치원>, <수삼석남>, <야래자전설>
10	중세전기 문학(고려 전기) 4	<작계긴전설>, <정과정>, <보현시원가>
11	중세후기 문학(고려 후기) 1	<동명왕편>, <백운거사전>, <공방전>, <죽부인전>
12	중세후기 문학(고려 후기) 2	<처용무>, <청산별곡>, <상저가>, <정석가>
13	중세후기 문학(고려 후기) 3	<관동별곡>, <죽계별곡> 이화에 월백하고,
14	중세후기 문학(고려 후기) 4	<탄로가>, <이화에 월백하고>, <녹이상제 살찌게 먹여>, <백설이 잦아진 골에>
15	기말고사	

위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고전문학사’ 교과에서는 조동일이 제시한 문학사의 시대구분에 따라 주차별 학습내용을 배치하여 두었다.¹⁷⁾ 교과 목의 성격상 한국 고전문학의 문학사적 변천에 관한 제반 양상을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1주차와 2주차에 걸쳐 한국 고전문학사의 기본 개념과 범주, 갈래 및 시대구분에 대하여 상세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고전문학사의 갈래와 시대 구분에 대한 여러 견해가 두루 소개되긴 하지만 향유층과 장르의 변동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동일의 시대구분이 문학사가 담아내야 할 문학의 변천 양상을 가장 적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시대구분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문학의 변동 양상을 더 정확하게 포획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새로운 구분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밝혀두었다. 이에 각 시대별 장르와 대표 작품군의 배치는 조동일의 그것을 따르되, 원시시대문학 항목에는 한국 민족의 원형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거인신화와 창세신화 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구비문학을 문학사의 범주에 포함하면서도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시시대문학 항목의 빈자리를 메울만한 한국 문학의 대표작이 실재함을 의식한 것이다.

문학사 교과이니만큼 시대별 사회문화적인 변동과 향유층의 의식변화가 어떠한 정서적 역동을 만들어내는가, 또 그것이 어떠한 문학 현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업의 방식 자체는 2학년의 ‘고전시가입문’과 ‘고전서사입문’의 그것을 이어간다. 학생

17) 조동일의 고전문학사 시대구분은 ‘원시문학 - 고대문학 - 중세전기(삼국시대-고려 전기) - 중세후기(고려 후기-조선 전기) - 중세문학에서 근세문학으로 이행기(조선 후기) - 근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1860~1918년)’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한국의 문학 변동 양상을 가장 적실하게 반영한 시대구분 범으로써 널리 통용되고 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1, 지식산업사, 2005, 34~43쪽 참조).

들은 문학사적 메타 정보를 접하기 이전에 각 시대·장르별 대표작을 감상함으로써 해당 문학 작품을 필두로 한 문학 변동 현상을 선행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2학년 과정을 통해 미리 접한 작품들을 제외한 인접 작품들로 선정되었으며, 작품에 대한 감상을 논의하면서 2학년 과정에 접했던 작품들을 포함한 작품군의 특성을 환기하도록 한다. 그러한 과정 이후에 문학사적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사회의 변동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메커니즘을 반복적으로 사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전문학사 교과와 성취도 평가는 중간·기말의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이때의 시험은 한국 고전문학사의 거멸못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에 대한 논쟁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고전문학사의 주요 국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자신의 문장으로 조리 있게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곧 그것을 문제없이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시험은 open-book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업 중에 제공된 수업자료를 펼쳐 놓고 확인하면서 글을 완성해내는 방식이다. 수업자료에 제시된 정보들은 개조식으로 간단한 핵심어, 작품의 출전이나 작가의 내력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것을 그대로 문제의 답으로 옮겨올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산발적으로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자신의 이해에 따라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문학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학사의 국면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고전문학사 교과 또한 단순 암기식의 문학사 학습을 지양하고 대표작에 대한 감상 체험을 통해 문학사의 흐름 자체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학생들은 2학년의 고전시가입문, 고전서사입문, 3학년의 고전문학사 교과에 걸쳐 한국 고전문학을 가깝게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⁸⁾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터키 현지의 학생들도 한국의 고전문학이 공간적으로는 한국,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국한된, 자신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난해한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특수성은 물론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이자 현실의 자기 삶에 주요한 화두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문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3. 교육 과정의 성과와 보완점

앞서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한국 고전문학 교육 과정의 설계와 그 구체적 내용, 의도된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고전문학 교육을 목표로 하면서도 학생들이 한국 고전문학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즐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으나, 완전한 교육 과정이란 이상일 뿐이며 교육자들이 평생을 통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도달불능점에 다름 아니다.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도 1차 이수자들이 배출되기까지 설계된 바의 고전문학 교육 과정을 실제 적용하여 본 결과 의도대로의 성과도 있었던 반면 예기치 않은 보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장을 빌어 그와 같은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의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성과와 보완점에 대하여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자인 필자 본인의 관찰 결과와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이루어질 것이다.¹⁹⁾

18) 논의의 방대함을 의식하면서 여기에서는 상호 연계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2학년의 입문 교과와 3학년의 문학사 교과에 대해서만 소개하도록 하고, 4학년의 구비문학론 교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9)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교육 과정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교육적 성과를 말하자면, 학생들의 감상과 이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전문학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물론 ‘어렵다’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문학 용어가 동원된 ‘강의’에 대한 것이고, 그 또한 용어의 낯설음으로 인해 이론 강의를 듣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일 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쉬운 현대어 역으로 제공된 작품의 감상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작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고 보충적인 이론 강의와 시청각 자료의 감상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들이 자신의 삶이나 세계를 형상화한 양상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²⁰⁾ 예를 들어 <정읍사>에 나타난 시적 화자에 깊이 몰입했던 한 학생은, 자신이 실제 연애 경험을 통해 느꼈던 불안감과 외로움을 토로하며 작품 속 화자의 이픔을 가슴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노라 이야기하였다.²¹⁾ <장자 못 전설>에 흥미를 느꼈던 한 학생은 그와 유사한 터키의 전설을 찾아 두 서사를 비교하면서 인간이 선(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가를 논하며, 작품을 통해 보편적 인간의 삶의 진실에 대해

통계로 나타내는 등의 양적 조사방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표본 집단이 10명 남짓한 소수인 상황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내는 것이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지니는가 생각해보면 오히려 객관성의 함정에 빠져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20) 학생들의 실제 토론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해 두어 근거로 삼았다면 좋았겠으나 이와 같은 주제의 연구를 미리 계획해 두지 않았던 탓으로 실제의 발언 내용들을 제시할 수 없음이 아쉽다.

21)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자는 저와 같아요. 저는 사랑을 할 때마다 행복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들은 언제나 금방 볼 수 있다고, 빨리 연락하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항상 혼자 불안하게 기다리기만 했어요. 이 노래 속의 여자는 저보다 오래 기다리고 더 슬픈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Zeynep Rüstemoğlu, 『정읍사와 여자의 슬픔』, 제출일: 2017. 10. 13.)

깊이 고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²²⁾ 한 학생의 경우에는 고전문학 감상을 통해 수렴된 성과가 대학생학술올림피아드에서 발표되어 입상하고, 학술논문으로까지 게재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²³⁾ 실제 강의 시간에 보여주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작품 감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을 읽어낼 수 있었는데, 이론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다소 침체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작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에는 활기차게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이론 강의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론 강의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낯선 문학 용어의 존재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낯선 문학 용어들에 터키어나 영어로 친절한 주석이 붙어 있는 고전문학 교재의 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로는 이론 강의를 위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간단한 교수 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하

22) “산 너머의 세상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주인공 며느리의 이미지입니다. 뒤를 돌아본 후에 돌아 된 며느리는 새로운 삶의 도전 중에 멈추어버린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 일깨움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 돌아봄의 다른 이름이 곧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음과 같다는 의미. 나아가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두 눈 질끈 감고서 놀라움이나 두려움, 자책과 회오, 고독감과 절망감 이 모든 것 결연히 뿌리치고서, 그 산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혁명을 이루어내야 했습니다.” (Sevde Sevim, 『장자못 전설과 Narlı Göl 전설에 대한 감상문』, 제출일: 2018. 4. 14.)

23) 물론 해당 성과가 학술적 가치를 지닌 논문으로 가다듬어지기 위해 필자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결국 공동연구의 형태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연구의 주된 논지는 온전히 학생 자신의 사고과정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교실저자로 참여한 본 연구자는 그와 같은 견해를 가다듬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조흥운-마이테 세린 츠, 『한-터 전설에 나타난 애욕의 금기와 그에 대한 전승 의식 비교 연구-한국의 <달래강> 전설과 터키의 <신부바위(Gelin Kayası)> 전설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63, 겨레어문학회, 2019, 137~160쪽).

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교수 자료에는 친절할 설명이나 주해를 덧붙일 여지가 많지 않다. 이에 필자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자체 교재로서 사용될 『한국고전문학사』를 출간할 계획이다. 해당 교재는 최대한 쉬운 한국어를 사용하여 작품과 문학사적 지식들에 대해 친절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작성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꼭 알아야할 문학 용어들에는 현지어 주석을 덧붙이고 해당 용어에 대한 색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와 같은 교재가 출간되어 학생들의 고전문학 이론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면, 용어의 낯설음에 기인한 고전문학 이론 강의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작품 감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몇몇 학생들에 의해 지적된 바, 읽어야할 작품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 어떤 작품의 경우²⁴⁾에는 현대어 번역본을 읽더라도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감상 대상 작품이 너무 많이 선정된 것은 순전히 강의를 담당할 필자의 욕심에 기인한다.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들을 되도록 많이 감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다수의 감상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대어 번역본의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은 필자가 일일이 번역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번역본 중 비교적 쉽게 번역된 것들을 감상용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해가 쉬운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현대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번역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도 작품의 실상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가독성 높은 번역본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24) 대표적으로 지적된 작품은 <국순전>이었다. <국순전> 등의 가전체 작품들은 현대어 번역본의 경우에도 작품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이나 고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이해가 극히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빼고서는 매우 소략한 줄거리만 남게 된다. 이에 가전체 작품들에 대한 친절한 현대어 번역이 요구된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고전문학 선집』의 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국 고전문학사상의 주요 작품들을 두루 포함하여 그 원문과 가독성 높은 현대어 번역, 현지어 주해가 제공되는 고전문학 선집이 발간되어 학생들이 수시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강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든 많은 작품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도 적어지고 현대어 번역의 수준도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선집의 활용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책을 읽고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매주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전문학 감상을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에 2020년 상반기에 출간 예정된 『한국고전문학사』에 더하여 『한국 고전문학 선집』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하여 교수자 본인의 관찰에 의해 발견된 하나의 문제점을 더 지적하자면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러 배려가 다소간 학생들의 방종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본 고전문학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고전문학 지식의 암기를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이론 수업에 제시되는 정보들도 학생들의 감상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임이 강조된다. 성적 평가 또한 문학 지식과 작품 해석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고서 제출이나 오픈북 테스트를 통한 자율 서술 방식을 취한다. 이는 모두 학생들이 난해한 한국 고전문학을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그야말로 문학적 감상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배려를 악용하여 이론 수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도 필

요한 정보들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론적인 설명 자체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이에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되 이론 수업에 있어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소극적 방안으로, 성적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수업 태도 점수를 상정하여 이론 수업 중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지적되는 경우 감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교수법의 개선이나 참신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 수업의 질을 재고하는 적극적 방안으로써 이론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설계하여 적용한 고전문학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그 성패를 가늠하여 향후의 개선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교육 과정의 핵심은 터키 현지의 학습자들이 한국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느끼게 될 시공간적 괴리를 최소화하고, 고전문학을 암기 학습의 대상이 아닌 문학 감상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도록 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1회 차 교육 과정 이수자들이 배출된 현 시점에서 그 성패를 돌아보았을 때, 학생들이 한국의 고전문학을 문학 감상의 대상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인간 보편적 삶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현지 맞춤형 교재의 발간을 통해 이론 수업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성, 고전문학 선집의 발간을 통해 감상 자료의 양적·질적 수준을 재고하고 자발적인 고전문학 감상 학습 여건을

제공할 필요성,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론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고전문학 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차세대를 이끌어갈 현직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최적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희, 「영국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 비형식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57, 국어교육학회, 2017, 91~123쪽.
- 권순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문학의 모색」, 『국어국문학』 165호, 국어국문학회, 2013, 5~37쪽.
- 권순궁,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과 고전문학 교육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5, 31~57쪽.
- 김경섭,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 방안: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수수께끼”의 활용 방안」,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137~164쪽.
- 김민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육 방법 - 『허생전(許生傳)』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2, 한국어교육학회, 2015, 15~32쪽.
- 김태연,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학습자 및 교수자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121~147쪽.
- 김해옥,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 교육 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어정보학』 4, 한국어정보학회, 2001, 15~25쪽.
- 김혜영, 「문학교육과 언어적 상상력」,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2009, 577~610쪽.
- 백인자,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22, 이화어문학회, 2004, 61~83쪽.
- 서유석·장만호, 「<춘향가>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배달말』 57, 배달말학회, 2015, 401~426쪽.
- 심재휘,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국어교육학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6, 93~127쪽.
-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한국학』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7~130쪽.
-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분화의 통합적 교육」, 『외국문학연구』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237~261쪽.
- 오은영, 「김유정의 『봄·봄』에 나타난 웃음문화와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한국

- 문예비평연구』 4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315~348쪽.
- 오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시 읽기 전략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343~375쪽.
- 우한용, 『소설 텍스트 중심으로 본 문학생력과 한국어교육』, 『한국어와 문화』 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0, 211~241쪽.
- 유홍주, 『해의 대학 한국어학과의 한국문학 교수 방안 : 헝가리 엘테대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135~157쪽.
-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239~256쪽.
- 윤여탁,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49~176쪽.
-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53~171쪽.
- 이혜강, 『문학 작품을 활용한 단계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9(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413~426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1, 지식산업사, 2005, 1~405쪽.
- 조은숙, 프나르 알툰다오, 『터키 내 한국기업과 한국어학습자의 요구분석-대학 내 한국어교육과정 설계와 개선을 위하여』, 『언어정보와사전편찬』 32,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2013, 61~94쪽.
- 조홍윤·마이테 세린 츠, 『한-터 전설에 나타난 애육의 금기와 그에 대한 전승의식 비교 연구-한국의 <달래강> 전설과 터키의 <신부바위(Gelin Kayast)> 전설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63, 겨레어문학회, 2019, 137~160쪽.
- 최권진,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 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237~266쪽.
- 최인나, 『러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논고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경우』, 정은경·손영은 편, 『중앙 유라시아 지역 한국학의 현황과 비전』, Istanbul: Demavend Yayınları, 2019, 77~92쪽.
- 최혜진, 『역량기반 고전문학교육의 방법과 과제』, 『어문논총』 8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01~124쪽.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Methods for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rough a Case of TR Istanbul University

Cho, Hong-youn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s not high in the realistic situatio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broad. Mostly, it is located in the surrounding position as a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even the classical literature, which is far from the local learners in time and space, is often considered as an exception. However, if Korean studies, linguistics, and Korean literature require acquiring knowledge as independent majors, it is impossible to abandon the obligation to educate classical literature for difficult reas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way for students to overcome the absolute challenges of 'distance with learners' and gain knowledge of classical literature. In this regard,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R Istanbul University, designed a total of five semesters of curriculum to educat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applied it to actual education.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curriculum and to measure its success to find future improvements. The core of the curriculum is to improve the educational outcome by minimizing the disparity of time and space that local learners will feel for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recognizing the classical literature as the object of appreciation rather than the object of memorization. Now, looking back at the success of the first round of curriculum graduates, it is successful to make students accept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 an object of appreciation and understand that it embodies human and other universal life. On the other hand, some complementary points were identified. It was necessary to publish local customized textbooks and collections of classical literatur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theoretical lectures while minimizing the burden on students.

Key Words Turkey, Istanbul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논문투고일 : 2020.01.20

심사완료일 : 2020.02.16

게재확정일 : 2020.02.20